



전변된 오늘의 보통강변

조선식지붕양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인 지붕형식양식이다.

민족음식

조선식지붕양식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때부터 기와를 이은 여러가지 류형의 고유한 조선식지붕이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벽화, 세나라시기의 건축물, 벽화에 새긴 건축물의 무늬들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다. 세나라시기를 지붕건축양식이 더욱 세련되고 지붕장식이 발전하였으며 지붕면의 표면재료인 기와의 품질도 더욱 개선되었다.

조선식지붕은 기능적, 형성적요구에 따라 그 형태를 다양하게 결합하기도 한다. 지붕구조는 일반적으로 도리, 대공, 대들보, 서까래 등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식지붕은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붕처마는 경쾌한 가벼운 곡선으로 이루어졌다. 배집지붕을 제외하고는 안우리곡선과 조로곡선으로 이루어진다.

기와도 장식기과를 많이 썼다. 과거 조선식지붕의 지붕구조는 많은 경우 나무로 하고 진흙, 삼화토, 석회 등으로 진흙물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있다.

지붕에서는 지지구조를 철근 콘크리트부재, 강철타라스 등을 리용하여 보다 오래 견디도록 한다.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에서는 조선식지붕양식을 살리면서도 보다 현대적이고 민중적미감에 맞는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있다.

본사기자



봉악산의 범운암

최근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에서 2개의 대상을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새로 등록하였다.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에서 발굴된 광복사터가 국보유적으로 등록되었다. 사동리사제지에서 동북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골안에 있는 사찰터는 기본면적이 1만 7 000여㎡이며 역사

자료들과 건물배치, 발굴과정에 나타난 유물들에 근거하여 고려시기였던 11세기경의 유적이라는것이 학술적으로 고증되었다. 이곳의 금당터, 강당터는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시기 사찰유적의 금당터와 강당

역사유적들을 새로 등록

터들 가운데서 제일 크며 특히 강당터는 고려왕궁 만월대의 기본정전인 회경전본전보다도 그 길이가 훨씬 길다. 보존유적으로 등록된 장수원동벽화무덤은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일대에서 발굴

되었다. 발굴 당시 무덤칸의 네벽에는 모두 벽화흔적이 있었으며 바닥에서도 천정의 벽화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장수원동벽화무덤은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들이 종전보다 삼석구역의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신지글자 (1)

글 김정설, 그림 리성일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운지 몇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다. 이날 단군은 여러날동안 사냥으로 열지 못하였던 정사모임을 열었다. 단군은 매해 들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산과 들에 살던 짐승들이 뛰노는 가을철마다 의례히 나라의 주요한 관리들을 이끌고 교외에 나가 며칠동안 사냥을 벌리곤 하였다. 이날 나라의 주요 신하들이 모인 정사모임에서 사냥기간에 쌓인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의논하였다. 모임이 끝날무렵에 단군은 5가들의 반렬에서 맨 앞자리에 서있는 마किन 신지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모든 관리들은 얼굴들이 검실검실하고 몸에 탄력이 있어보였으나 신지만은 얼굴빛이 새하얗고 후리후리한 몸은 후출근한데다 구부정한 걸음이 없었어 보였다. 신지의 이런 모습을 보는 단군의 마음은 측은하였다. 신지만이 이번에도 사냥에 따라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지는 나라가 세워질 이

래 단 한번도 사냥에 나서지 못한것이다. 신지가 이렇게 사냥에 한번도 따라나서지 못하게 된것은 신지가 말고있는 마가의 직책때문이었다. 마가의 직책은 임금의 지시를 받아 아래에 전하고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받아 임금에게 아뢰는것이였다. 당시까지 글자가 없었던것으로 하여 마가의 지시나 아래에서 보고되는 모든것을 머리에 다 기억하고있다가 전하여야만 했으므로 더구나 궁궐을 들수 없었던것이였다. 신지를 한동안 내려다보던 단군은 조용히 말했다. 「마가, 그대 내 말을 듣거라.」 「네. 들소이다.」 「그대가 이번 사냥에도 따라나서지 못한것은 참 미안스럽게 된 일이다.」 「황송하사이다. 허나 신은 말은 일에서 조금도 거를을 벌수 없으므로 도리어 사냥에 따라나서지 않는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속을 가리우고 하는 대답이로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많은 싸움터에서 수

그러나 단군은 신지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신지는 그 다음날 단군이 붙여주는 짐승들이 군사 수백명을 데리고 드디어 사냥을 떠났다. 몇년만에 처음으로 갑옷을 차려입고 군마를 타고 산과 들을 달리는 신지의 마음은 한없이 상쾌하고 즐거웠다. 참으로 남아로서 말을 타고 화살을 날리는 즐거움이야말로 역시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사냥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려는듯 밤늦게까지 군사들이 쫓아주는 짐승들을 쫓고 또 쫓았다. 이렇게 첫날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어느 한 마을에서 군사들과 함께 하

루뎀을 즐기며 보낸 그 이틀날이었다. 이날도 날밝기 전에 사냥에 나섰다. 이날엔 큰짐승을 잡아보자고 험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실개천이 흐르는 어느 한 골안에 들어섰을 때였다. 물을 먹으러 내려왔던 살쥔 두마리의 큰사슴이 군사들의 물소리에 쫓겨나 골안으로 도망치고있었다. 「사슴이 나타났다.」 군사들의 환성이 울려왔다. 「보았다.」 신지는 군사들의 환성에 이렇게 호응하고 전통에서 화살을 꺼내어 활에 메우면서 사슴을 쫓았다. 두마리 사슴이 화살촉끝에서 오르내리었다.



레 느껴졌다. 그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사냥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려는듯 밤늦게까지 군사들이 쫓아주는 짐승들을 쫓고 또 쫓았다. 이렇게 첫날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어느 한 마을에서 군사들과 함께 하

지자기현상은 지구를 둘러싼 지자기마당이 태양을 비롯한 여러 인자에 의하여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자기현상이 일어날수 있는 날들을 지자기물리적으로 불리한 날이라고 한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태양이 지자기물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구에 살고있는 생물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이 새롭게 해명되었다. 태양의 자기마당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강화되었다가 약화되면서 사

람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생물물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람은 오래동안 지구의 자기마당속에서 살아오면서 그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자

지자기현상과 뇌졸중

기마당현상에 대하여 그 어떤 느낌이나 장애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허약한 사람들과 노인들 특히 심장판막장애, 심근염, 협심증, 고혈압을 비롯한 순환기계통과 신경쇠

약증 등 신경계통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람의 피는 태양활동의 변화에 민감하기때문에 지자기폭풍과 같은 외적작용

경계통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영향을 미리 막아야 한다. 지자기물리적으로 불리한 날의 전날 저녁에는 식사후 45분정도 지나서 한시간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보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특히 지자기물리적으로 불리한 날에는 아침제조를 엄격하게 하고 식사를 제시간에 적당히 하며 명랑하게 일하고 즐겁게 생활해야 한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목은 예로부터 우리 겨레가 즐겨 먹은 독특한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목은 메밀, 옥두, 꽃강냉이, 도토리 등을 물망으로 갈아 갈라낸 농마를 물과 함께 끓여서 식혀 굳힌 음식이다. 목가운데서 옥두목을 제일로 일러오는데 과연 옥두로 만든것을 《청포》, 노란 옥두로 만든것을 《황포》라고 한다. 목을 만들 때 처음에는 묽은 농마물을 두고 약한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농마물을 집차 걸쳐 풀어두면서 잘 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마에 타붙지도 않고 알맹이도 생기지 않으면서 목이 잘 된다. 목을 지나치게 빨리 식히면 뽕성이 낮은 목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온도가 높은 곳에 오래 두면 물기의 증발이 일어나 딱딱한 목이 된다. 그러므로 목은 알맞춤한 속도로 식혀야 한다. 목은 양념간장을 쳐서 그대로 먹기도 하고 부재료를 섞어 여러가지 요리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여러가지 부재료를 섞어 만든 요리를 《목채》라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어머니의 《실물교양》

남편: 「여보! 이렇게 시퍼런 대낮에 전등을 켜놓고있으면 어떻게 하오?」  
안해: 「나도 방금 들어왔는데 집에 불이 켜져있더군요.」  
남편: 「아침엔 분명히 끄고 나갔는데...」  
안해: 「아들녀석이 그랬지요 뭐.」  
남편: 「그럼 당신이라도

제책 꺼야지.」  
안해: 「그렇수 없었어요. 실물교양이 필요하길래.」  
남편: 「술한 전기가 날아나는데 그건 무슨 소리요?」  
안해: 「당신은 내가 예를 유할 때마다 나를 책망하질 않았어요. 실물교양을 하지 않냐고!...」  
남편: 「그럼 이게 어머니의 실물교양인가?...」